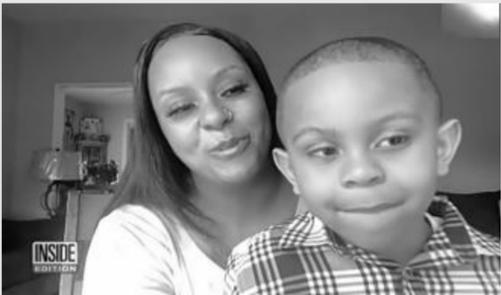


무장 괴한에 맞서 엄마 지킨 5살 소년



▲ 사진=유튜브(Inside Edition) 캡처

미국의 5살 소년이 총기로 무장한 괴한들에 맞서 엄마를 지키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는 놀라운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3일 'Inside Edition'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30분경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의 한 가정집에서 벌어진 사건을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날 총기로 무장한 괴한 4명이 갑자기 총성과 함께 타미카 레이드의 자택에 침입했다. 당시 집안에는 다림질을 하고있던 엄마 레이드와 그의 아들인 5살 데이비드, 그리고 어린 딸만 있었다.

무장 괴한들은 엄마 레이드를 총기로 위협하며 제압했으나 데이비드는 자신의 장난감을 괴한에게 던지며 저항한 것은 물론 괴한에게 매달려 싸우기 시작했다. 나이 어린 데이비드의 저항이 큰 위협이 되지는 않았으나 괴한들은 그를 때어놓으며 몸부림을 쳤다. 이 장면들은 집안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고 무장 괴한들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다. 사우스벤드 경찰은 "사건 당시 무장괴한 4명 중 3명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다행히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도난당한 물품도 없어 왜 이들이 가정집에 침입했는지 불분명하며 현재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출산 진통 참으며 변호사 시험 본 여성

출산 진통을 참아가며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 20대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놀라움을 전했다.

11일 'abc30'에 따르면, 시카고 로올라대 로스쿨을 졸업한 브리애나 힐(28)은 지난 5일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다. 이 시험은 당초 7월 말에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기됐고, 2개월 여가 흐른 뒤에야 시험이 치러졌다. 힐의 계획대로라면 임신 28주차에 시험을 볼 수 있었지만, 실제로 변호사 시험을 치르는 시기는 임신 38주 차였다.



▲ 힐과 그의 아들. 사진=abc30 화면 캡처

들어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험 2교시가 시작되자 본격적인 진통도 함께 시작했다. 하지만 시험용 컴퓨터 앞에서 벗어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진통을 참고 시험을 치렀다. 힐은 당일 시험을 모두 마치자마자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4시간여의 진통을 더 겪고 나서야 아들을 출산했다.

힐의 놀라운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출산 다음 날 병원 측이 마련해준 회복실에서 2차 시험을 또 치러냈다.

지난 5일, 시험 첫 날 1교시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힐은 진통이 시작했다. 결국 1교시가 끝난 후 양수가 터졌고 그는 가족과 조산사에게 연락했다. 힐은 "조산사가 '아기가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고 말해줬다. 2교시 시험은 치를 수 있다는 생각이

힐은 "미뤄진 시험 일정을 본 뒤 '병원에 누워 시험을 치러야 하는 거 아니냐'며 농담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이 됐다."면서 "남편과 가족, 그리고 친구들의 격려가 있었기에 어려운 일정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저분한 방' 선발대회 입상자의 방 모습

영국에서 올해 가장 지저분한 방으로 한 여학생의 침실이 선정됐다.

지난 5일 영국 '메트로'에 따르면 현지 침대업체 '베드SOS'는 매년 자기 방을 어지럽힌 채로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가장 지저분한 방' (MESSIEST BEDROOMS) 선발대회를 열고 있다. 이 선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 새로운 침대를 선물로 준다. 이 때문에 올해 전역에서 300명이 넘는 참가자가 침실 사진을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 지저분한 방 선발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새라의 방(왼쪽)과 2위를 차지한 오드리의 방. 사진=bedsos

올해 우승자는 북아일랜드 다운주에 사는 한 '새라'라는 여학생이 차지했다. 새라는 우승 상품으로 400파운드(약500달러) 상당의 새 침대를 받았다.

침대 업체 관리자 대니 리치먼드는 "응모자가 많아 매해 충격을 받는다. 우승자는 새 침대가 도착하기 전에 부디 방 좀 청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드SOS가 홈페이지(www.bedsos.co.uk/blog/2020/09/the-messiest-bedrooms-of-2020)에 공개한 사진을 보면 사진 속 공간이 침실인지 아니면 쓰레기장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 대회는 참가자 자신의 방이 아니라더라도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지인의 방 사진을 사용해 응모할 수도 있다.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